

과학기술계 속의 한국인과 외국인

글 | 이수중 _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sjrey@phya.snu.ac.kr

한 두 해 전 국내 모 유명(?)과학자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며 온 마스크를 달군 적이 있다. 과학을 설탕처럼 달콤한 민족주의적 색채와 절묘하게 혼합시키며 수많은 한국인들을 눈물이 절끔 나도록 열광시켰던 표현이다.

지난주 매달 정기적으로 가지는 학술토론을 마치고 여럿 동료학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였다. 대화 화제가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혹은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연구원들의 고용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옮겨졌다. 평소 민족주의라면 부르르 몸을 떨며 열변을 토해내는 H대학교 S교수의 요지는 이랬다. “금쪽같은 대한민국의 예산으로 외국인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고등교육도 시켜주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직장도 주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능력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한국인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나머지 자리가 있거나 여력이 있으면 외국인을 고용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 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반으로 나뉘어 모두들 저녁 늦게까지 열변을 토하며 흥미로운 논쟁을 이어나갔다.

피부색깔에 차별 없는 외국의 대학들

필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 속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들 관점에서 논쟁이야기를 이어가 본다. 필자가 연구하는 전공분야는 오래 전부터 한국인보다도 더 많은 외국인 연구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현상이라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수긍하는 편에 서기로 한 K대 N교수가 “이유가 무엇이나”고 따지듯 물었다. 그래서 ‘왜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열띤 논쟁마당의 한 가운데에서 홀로 20년 전 미국으로 유학 가던 때의 상념에 빠져본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미국의 명문대학들에 대학원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교수님의 추천서와

함께 용감하게 원서를 들이밀었다. 특급우편도 없던 시절 구질구질한 봉투에 서류를 담아 국제소포로 보내고 제대로 도착했는지 노심초사 했었다. 그런데 답장이 왔다. 입학도 허가하고 장학금도 주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대학에서 왔었다.

지금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참으로 황망한 생각이 든다. 도대체 이 대학들은 듣도 보도 못한 외국 학생을 무얼 믿고 받아들인단 말인가. 칼텍의 교정에서 같이 연구생활을 한 동료 미국학생들은 모두 너무나도 탁월하고 우수하여 내 생애에서 가장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들었던 친구들이었다. 미국은 왜, 무엇이 아쉬워서 외국 학생을 받아들였던 것일까. 이해하기 힘든 사고방식 아닌가. 아니 그러고 보니, H대 S교수도 K대 N교수도 모두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박사학위를 마치지 않았는가. 그 덕에 지금 각자 한국의 내로라하는 명문대학에서 교수로 취업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적 지위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피부색깔이 다른 외국인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장학금을 주면서 최고의 교육과 연구를 가르쳐 준 미국의 대학들에 감사함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또 이제는 한국의 대학에서 재직하는 우리가 외국학생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여 그렇게 진 빛을 되갚아야 할 때가 아닐까. 논점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S교수, N교수를 비롯한 ‘수구파’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고 한다.

다시 황망한 상념은 과거의 시간을 타고 흘러간다. 박사학위 후에도 필자는 산타바바라에서 연구원으로, 예일과 프린스턴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고귀한 시간들을 가졌다. 그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느꼈던 기간이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인생에서, 연구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결정적인 순간들이었다. 물론 주변에는 기라성 같은, 그래서 항상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미국인 동료들이 수많이 포진해 있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미국의 대학, 연구소들은 나에게 직장을 제공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리를 베풀어 주지 않았던가.

미국과 유럽에서 12년을 보낸 필자는 연구와 교육에 봉직하는 대학교수로 이 땅에 되돌아왔다. 처음에는 연구비를 조달하기 위해 동분서주해도 연구비는 잘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허탈하게 지낸 날들이 수도 없었다.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찾아오는 외국학자들과 같이 토론으로 밤낮없이 흥분하며 연구에 대한 목마른 갈증을 풀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이런 느낌은 필자뿐이 아니었다. P대학교 P교수도, K대학 C교수, E대학 A교수도 모두 그렇게 느꼈었노라고 화답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편리한 이분법에 이끌리고 있는 자신을 어렴풋이 느낄 때 즈음,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들의 사고방식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좋은 연구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외국의 기관에서 상을 받게 된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받았다. 꽤 큰 액수의 상금도 주었다. 그 뿐 아니다. 독일에서는 방문연구 때마다 필요한 경비도 제공한다고 했다. 그 전까지 독일이라고는 방문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곳에서 공동연구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또 이런 저런 자리들을 받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는 빈도수도 늘어났다. 내가 프랑스에 대해서 무얼 안다고, 세금 한 푼 안 낸 영국과 캐나다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 미국에 어떤 애국적 행동을 하였다고 그들이 그런 부탁을 한단 말인가. 그 나라에도 똑똑한 인재는 많지 않던가. 도대체 그들에게 자국인과 외국인은 무엇이란 말인가.

과학의 주체는 '인간'

과학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풀자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행위를 다루는 학문을 과학이라고 일컫는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인간이다. 고양이나 개미가 주체가 아니라 인간이다. 고대에서 시작된 과학적 사고방식은 인간이 철저히 배제된 중세를 빠져나오며 인간을 되찾는 과정에서 재탄생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행위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밝혀주고 인류 문화문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굳이 늘어놓지 않더라도 과학의 주체는 인간이다. 그 인간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미국인과 외국인, 일본인과 외국인과 같은 이분법

적 분할은 없다. 다분히 보편적이다. 이러한 행위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집단을 우리는 과학자라고 부른다. 그 과학자 중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과학자도 있고, 중국에서 태어난 과학자도 있다. 필자와 친한 동료는 모리셔스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영국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전 세계 각 나라에서는 과학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의 대학과 연구소들을 보라. 수많은 재력가들이 과학연구에 엄청난 액수의 재산을 흔쾌히 기부하고 있다. 그 기부금으로 브라질의 생태학자를 불러오든, 아니면 에쿠아도르의 수학자를 채용하든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하여 인류가 과학이라는 가치 있는 행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과학계에 외국인이란 무엇인가. 프로스포즈 팀처럼 형형색색 장식하며 만들어 낸 장식품인가. C대학 H교수가 한탄하며 이야기에 끼어든다. 대덕에 있는 K국책연구소에 연구 관련으로 찾아갔더니 그 곳 부장급 연구원이 “뭐 힘들게 연구해? 논문은 저 러시아애들 몇 명 불러다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먼 길 찾아온 사람을 맥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의 외국인 과학자란 그저 부러져 논문 만들어내는 제조기라는 말인가. 필자는 프랑스 정부가 매년 기초과학분야에 엄청난 국가예산을 배정하며 책상에 남기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증대하고 전 인류가 프랑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우주와 합리적 사회, 그리고 과학기술문명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물론 이 땅에서는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소리다.

찾집 영업시간을 넘기며 떠돌고 있는 우리들 등 뒤로 종업원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할 무렵, 그때까지 조용히 논쟁을 듣고 있던 S대학 B교수가 한마디 툭 던진다. 골목길에 미군 지프차가 나타나면 ◎아가서 ‘Give me gum!’ 을 노래 부르듯 외치며 자라왔던 전후세대가 지나가면 아마도 한국인과 외국인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방식도 희미해질 것이며, 그 때까지 늙더라도 죽지 말고 악바리로 살자 남자고... ◎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를 졸업, 미국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후, 미국 산타바바라 이론 물리연구소 연구원, 예일대학교 연구교수, 프린스턴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